

섬진강 재첩어업의 유산적 가치 검토

Inside&Insight

- + 국가중요어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을 목표로 섬진강 재첩어업의 유산적 가치를 검토함
- + 섬진강 재첩어업은 식량생산 기능과 주민생계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 하구 생태계의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성 유지에 기여하고, 전통어로 지식체계와 전통문화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유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 + 특히,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온 원시어로행위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재첩어가 뿐만 아니라 재첩가공업체와 재첩전문식당의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적 중요성이 큼
- + 재첩은 서식환경이 잘 보존된 기수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라는 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섬진강에서만 유일하게 재첩어업이 유지되고 있는 점,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어업행위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점, 전통어업체험을 통해 어촌방문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섬진강 재첩어업의 국가중요어업유산 등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① 배경과 목적

☞ 어업유산 지정 제도

-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제도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전 세계의 전통적 농업 시스템과 경관, 생물 다양성, 토지이용체계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명칭은 GIAHS(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 FAO는 2002년 세계 각지의 전통적 농업활동과 경관, 생물 다양성, 토지이용체계를 선정해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계승하고자 하는 취지로 GIAHS 등재를 시작함
 - 환경과 지역사회에 적응하며 진화된 독특한 토지이용체계와 생태경관이 무분별한 개발이나 정책적 실패, 빈곤, 무관심에 의해 손상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농업유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임. 명칭은 농업유산이나

- 어업, 임업, 축산 등 모든 1차산업의 생산체계와 지식을 대상으로 함
- 2018년 현재 20개국의 50여 개 유산이 등재되어 있음

- 국가중요어업유산

- 국가중요어업유산 개념 : 오랜 기간 동안 형성, 진화해 온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어업활동 시스템과 그 결과로 나타는 어촌 경관·문화 등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통칭함
-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3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활용)
- 국가중요어업유산 등재의 혜택 :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어업유산지정서가 발급되고 향후 3년간 전통자원 복원과 정비 등을 위한 예산이 지원됨 (총사업비 7억원)

▣ 연구 목적 : 섬진강 재첩어업의 유산적 가치 검토

- 국가중요어업유산 등재 추진을 목적으로 섬진강 재첩어업의 유산적 가치를 검토함
- 국가중요어업유산 항목별 섬진강 재첩어업의 특징과 가치를 정리함

② 섬진강 재첩어업의 특징

▣ 식량생산

- 식량자원으로서의 활용
 - 재첩은 우리나라 강하구 지역 주민들이 널리 애용하던 식재료였는데, 특히 낙동강 하구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으로 재첩국이 유명했음
 - 70~8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재첩이 일본으로 수출되었음. 매일경제신문 1976년 7월 2일자 기사에 “한국내수면수출진흥협회에서 재첩수출권을 관장하다가 1976년 상반기 한국패류진흥협회로 추천권을 이양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점으로 미루어 그 당시 재첩 수출의 이권과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1980년대 후반부터 강 하구 수질오염과 하구둑 공사 등 생태계 변화로 인해 섬진강을 제외한 타 지역의 재첩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해 현재는 섬진강에서만 상업적 재첩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어업별·시도별·품종별 생산량을 집계하는 어업생산동향조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1,100톤 이상이던 섬진강의 연간 재첩 생산량이 2017년에는 약 800톤 수준으로 감소했음 (표1)
 - 통계청이 집계한 어업생산량 자료는 각 수협에서 취급한 위판량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인데 재첩의 경우 어가에서 자가 가공하거나 가공공장으로 직접 출하하는 물량이 많아 실제 어획량은 통계치보다 높은 수준임

(표 1) 섬진강 재첩 생산량 통계

(단위: 톤)

생산지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¹⁾
경상남도	400	812	722	948	897	978	857	637
전라남도	316	295	212	152	92	185	330	161
합계	716	1,107	934	1,100	989	1,163	1,187	798

주1) 잠정치
자료) 어업생산동향조사(www.kosis.kr)

- 주민 생계수단으로서의 역할
 - 섬진강 재첩어업은 어선을 이용한 어업(형망)과 손틀방류(거렁이)를 이용한 어업으로 구분됨
 - 형망어업과 손틀방류어업 모두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임.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어업방법을 유지하고 있는 손틀방류어업은 60대 이상 고령 또는 여성인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큰 소득을 얻는 중요한 생계 수단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손틀방류어업인의 연간 재첩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지난 2014년 조사한 어업 보상금액 산정 자료에서 적용한 하동군 손틀방류어업인의 연평균 재첩어획량은 740톤이었음. 2018년 6월 현재 재첩 거래가격인 kg당 5천원을 적용하면 하동군 손틀방류어업인 전체의 연간 평균 생산금액은 약 37억원임. 하동군의 손틀방류 어업허가가 총 147건이므로 손틀방류 어업인 1인당 연간 평균 생산금액은 약 2천 5백만원 정도로 계산됨. 손틀방류 재첩어업은 거렁이와 고무통, 그리고 노동력만 투입되므로 생산금액의 대부분이 어가의 소득으로 귀속됨
 - 어로참여자 개인의 건강상태와 숙련도에 따라 소득의 차이는 있고, 재첩가격 변동 등의 변수가 있으나, 6-70대 고령어업인이 재첩채취에 참여해 연간 약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음. 연간 어로일수가 약 100일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지역주민의 생계수단으로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생물다양성

- 생물다양성
 - 재첩은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전역의 하천에 분포하던 담수 패류였음. 동아일보 1977년 6월 1일자 기사에 의하면, 1977년 3월 21일부터 10일동안 우리나라 최초로 한강수역 내수면 정밀패류자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한강과 북한강에는 말조개를 비롯, 재첩, 도톨조개 등 8개 종류의 민물조개가 서식하고 있음이 밝혀졌음
 - 1970~80년대 당시 재첩은 일본으로 고가에 수출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천에서 남획이 심해 자원이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었으며, 1980년대 들어 공업화와 도시화의 가속으로 재첩서식지는 더욱 줄어들었음 1985년 신문기사에서는 당시 재첩 가격이 kg당 500원까지 상승해 부여 백마강에서 재첩을 남획한 결과 재첩이 멸종될 위기에 처하게 됨을 경고함(동아일보 1985년 4월 19일자 기사)
 - 1990년대에는 전남 해남산의 재첩이 연 2~3만톤 정도 생산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영산강의 서식환경 악화로 재첩자원이 급감해 현재는 섬진강에서만 재첩을 생산하고 있음
 - 섬진강은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하천 중에서 하구의 자연생태계가 변형되지 않은 하천이자 재첩의 상업적

어업이 이어지고 있는 유일한 하천으로, 기수역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게 보존되고 있음

● 생태계기능 보존·증진

- 현재 섬진강 하구에서 행해지는 재첩 맨손채취 어업은 거랭이라는 채취도구를 이용해 오직 사람의 힘으로 강 바닥의 재첩을 긁어 모으는 방법이므로 강 하구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어획이라 할 수 있음
- 거랭이를 이용해 강 바닥을 주기적으로 긁는 행위는 재첩을 모을 뿐만 아니라 강 바닥에 퇴적된 유기물을 뒤집고 섞어 주게 됨. 이는 강 하구 생태계의 영양순환이 잘 되게 하여 하구 생태계기능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음
- 섬진강 하구의 재첩어업은 하절기 2개월(7, 8월), 그리고 동절기 5~6개월(11월부터 익년 4월정도)은 조업을 하지 않으며, 최소포획체장을 1.2cm로 규제하고 있어 자원이용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됨

▣ 지식 체계

● 강 하구 재첩채취 어업기술의 변천사

- 아주 오래전에, 인류가 최초로 재첩을 식용할 시점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채취했을 것으로 추정됨
- 농경과 정착생활이 시작된 신석기시대 이후에는 싸리나무 또는 대나무 등 구하기 쉬운 재료를 이용해 재첩 채취 도구를 만들어서 재첩을 채취했을 것으로 추정됨(현재까지 남아있는 유물을 통해 전통적인 재첩채취 도구의 형태를 유추할 수 있음)
- 근대 이후에는 주로 강철 소재의 갈퀴에 나무로 된 자루를 부착한 쇠 거랭이가 사용되었음
- 현재는 스텐레스 소재의 갈퀴에 대나무 소재의 자루를 결합한 형태의 거랭이가 사용되고 있음



〈나무 거랭이〉



〈쇠 거랭이〉



〈스텐레스 거랭이〉

자료) 한국수산문화연구소 제공

〈그림 1〉 재첩 채취도구의 변천 과정

▣ 전통문화

● 재첩국

- 재첩국은 강 하구 지역 주민들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식재료로 사용되었으며, 재첩 자원이 줄어 든 오늘날에도

- 지역 향토음식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특히 음주 후 주독을 풀어주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1670년경 저술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조리서인 음식디미방(飲食知味方)에는“모시조개와 가막조개를 껍질째 씻어서 맹물에 삶아서 벌어진 채 그 물까지 함께 떠 드린다. 이름은 와각탕이라고 한다”는 기록이 있음(백두현, 2006). 1802년 이재위가 편찬한 어휘집 『물보(物譜)』에‘蜆’을 모시조개, 가막조개로 풀이하고 있음
 - 재첩을 약재로 활용한 기록
 - 동의보감 탕액편에서 현(蜆, 가막조개)를 “진흙 속에 사는 검은 색 조개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으며, 그 성질과 효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①성질이 서늘하고 차다. 독이 없다. 눈을 밝게 하고 오줌이 잘 나오게 하며 열 기운을 내리고 음식맛이 나게 하며 소갈을 멈춘다. 또한 술독과 황달을 없앤다(이것은 조갯살의 효과이다). ② 껍데기를 태워 가루낸 것은 성질이 따뜻한데 음창(陰瘡), 이질, 반위(反胃), 구토 등을 치료하고 가슴에 생긴 담수(痰水)를 없앤다.

③ 섬진강 재첩어업의 역사성

▣ 역사기록

- 선사시대 한반도의 재첩
 - 부산, 창원 등 낙동강 유역에서 발견된 패총의 대부분에서 재첩이 출토되는 것으로 미루어 재첩은 선사시대 한반도인의 중요한 식량자원이었다는 것으로 추측됨
 - 김건수(1994)는 부원동 패총에서 발견된 패류 중 재첩류가 3.52% 포함된 점을 근거로 원삼국시대 한반도인이 재첩을 식용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낙동강 유역에 형성된 패총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라고 주장함(함안패총, 창원 기음정동 패총, 창원 산남리 합산 패총, 창원 월잠리 유물 산포지 등 부산, 창원일대 패총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음)
 - 김건수(1999)에 의하면 대동강변에 분포한 미림리 패총과 청호리 패총은 재첩류 중심의 담수패류가 주종을 이루는 패총임. 이로 부터 선사시대 재첩이 한반도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재첩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
 - 재첩 한자로 ‘眞蜆’, 중국어로는 ‘河蜆’이라고 표기됨
 - 박구병(1969)는 고려도경에 “굴과 같은 패류는 많이 포획하나 그 자원은 다함이 없다”고 기록된 점을 근거로 고대 한반도에서 이미 패류를 대량으로 포획해 식량으로 이용했음을 주장함
 - 1820년경 실학자 서유구가 저술한 어류학분야 기술서인 난호어목지 ‘어명고(魚名攷)’에는 강어(江魚) 55종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蜆’를 발견할 수 있음. 김영진(1982)는 이 기록을 가막조개로 번역하고 있음. 가막조개라는 명칭은 바다서 서식하는 가무락조개 또는 재첩을 지칭하는데, ‘강어’에 기록된 가막조개는 재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1908년 한국통감부가 발간한 『한국수산지』제1집에서는 그 당시의 유용수산물 106종을 기록했는데 여기에 재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100여년 전에는 재첩이 상당히 대중적인 식재료였음을 알 수 있음

4 섬진강 재첩어업의 지역성

▣ 지방자치단체의 재첩어업 육성 정책

- 경상남도
 - 경상남도에서는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내 수산가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수산물 공동 브랜드 '청경해'인증과 경상남도 추천 상품을 인증하는'QC마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2018년 현재 청경해 브랜드를 획득한 재첩가공업체는 모두 3개이며, QC마크를 획득한 재첩가공업체는 모두 7개임
- 하동군
 - 1990년대 재첩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하동읍 신기리 일대 4.5ha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재첩 어획을 금지하는 등 재첩 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음
 - 섬진강 재첩의 서식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섬진강 상류 지역에 공장 등 유해시설 허가를 제한하고 있음
- 광양시
 - 2009년부터 재첩어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단법인 광양섬진강재첩 생산자협의회」의 설립과 공동 브랜드'광양섬진강재첩'출시를 지원함

▣ 지역 주민의 인식도

- 섬진강 어업계 및 영어조합법인 현황
 - 하동군의 두곡, 읍내리, 광평, 신비, 목도, 화목, 고전 객길 등 8개 어업계와 광양시 원동·답동, 돈탁, 월길, 송금, 사평, 신기, 선소, 오추, 죽천, 섬진, 다사·소학정, 외압, 향동, 관동 등 14개 어업계가 재첩어업에 참여하고 있음
- 섬진강 재첩 어업권 현황
 - 손틀방류어업권 : 하동군의 개인 및 단체가 보유한 손틀방류 어업허가는 총 147건임 (광양시의 손틀방류 어업허가는 0건임)
 - 형망어업권 : 하동군 개인 및 단체가 보유한 형망어업권은 총 23건이고, 광양시의 개인 및 단체가 보유한 형망어업권은 총 16건임
- 지역 주민의 재첩어업 인식과 중요성
 - 하동군과 광양시의 주민들은 맑고 깨끗하고 자연그대로의 상태를 보존하고 있는 섬진강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섬진강에서만 유일하게 국내산 재첩이 생산되고 있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음
 - 하동군과 광양시의 재첩생산어가에 있어서 재첩어업은 매우 중요한 생계수단임. 특히, 60~70대 고령의 어업인이 연간 약 100일정도의 조업에 참여해 1~2천만원 또는 그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어, 노인일자리 창출과 유지의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음
 - 섬진강의 재첩어업은 어로활동에 종사하는 어업인 뿐만 아니라 가공업체와 재첩식당 종사자의 생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재첩어업으로 인해서 지역 내 50여 개 재첩가공업체에 종사하는 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있으며, 연간 수 백 톤 이상의 재첩 생산은 섬진강 일대에 분포한 재첩전문식당 수십 개소의 영업을 가능하게 함

5 시사점

▣ 국가중요어업유산 등재를 위한 요소

-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대상
 -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어업기반시설·가공시설·생활시설 및 이를 포함하는 경관·생물다양성을 갖춘 유형적인 것
 - 어업활동과 관련된 어업기술·전통지식·어업문화·사회조직을 갖춘 무형적인 것
-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기준에서 문화유산과 구별되는 특징
 - 현재 식량생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주민의 생계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임
 - 주변과 조화되고 아름다운 경관 형성이 지정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
 - 사회구조 변화 및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 방법이 자연스럽게 발전해 현대적 요소를 포함한 것도 유산으로 인정함

▣ 섬진강 재첩어업의 국가중요어업유산 등재 가능성

- 섬진강 재첩어업의 등재 가능성
 -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와 어업기술, 현행되고 있는 어업행위의 과정과 지역적 중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섬진강 재첩어업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어업임이 확인되었음
- 섬진강 재첩어업의 등재 가능성
 - 재첩은 서식환경이 잘 보존된 기수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라는 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섬진강에서만 유일하게 재첩어업이 유지되고 있는 점,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어업행위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점, 전통어업체험을 통해 어촌방문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섬진강 재첩어업의 국가중요어업유산 등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 김건수(1994), “원삼국시대 패총의 자연유물 연구. 2”, 한국상고사학보 제17호, 한국상고사학회, pp.41~100.
- 김건수(1999), 『한국원시, 고대의 어로문화』, 학연문화사.
- 김영진(1982), 『농림수산고문헌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구병(1969), 『한국어업기술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한국문화사대계 제3권).
- 백두현(2006), 『음식디미방 주해』, 글누림.
- 이재봉·신영재·이종희·장창익·이동우(2010), “섬진강 재첩의 연간잠재어획가능량 추정 연구”, 한국어업기술학회, 2010년 학술발표논문집, pp.57~60.
- 매일경제(1976. 7. 2), “수협, 직수출 품목 확대”(5면).
- 동아일보(1977. 6. 1), “민물 조개의 보고 남한강 60억원대의 말조개 서식”(4면).
- 동아일보(1985. 4. 19), “백마강 민물조개 멸종위기”(10면).

